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개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 심의 처리



해운대구의회(의장 이명원)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 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처리사항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반송종합사회복지관 및 반석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한편 이번에 처리한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547억 6

천만원이 증가한 8,052억13백만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520억 95백만원이 증가한 7,880억 2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65 백만원이 증가한 171억 83백만원이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해운대구의회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혜진 의원을 비롯한 재정 및 회 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위원 4명 을 선임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 집행됐는지에 대해 4월 11일부터 30일까 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해운대구는 결 산 검사를 통해 작성된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 산서를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대한노인회 해운대구 지회장 취임식 참석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은 지난 14일 해운 대구문화복합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 노인회 제17대 해운대구 장권세 지회장 취임 식에 참석하였다. 이명원 의장은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며 귀중한 경험과 경륜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후세대를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김상수 의원
(중2·좌2·송정동)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해운대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홍순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본의원은 해운대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1차 보건 의료로 담당함으로써 각종 보건 의료사업 추진과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검사 및 진료 등 폭넓은 의료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공의 포괄적 보건 의료기관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함을 알 수 있었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운대구 관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4,010명으로 전체 394,000여 구민의 18.8%가 해당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를 포함하는 급여 수급자는 38,801가구, 총 52,653명으로 전체 구민의 13.4%가 해당된다. 이러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저소득 가구 등의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나 그 유족 등 관내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장기 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 인체조직기증 등록자 등에도 진료비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래도시를 선도하는 우리 해운대구가 보건소 진료비 100% 감면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 가구, 보훈유공자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관리라는 보건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홍순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해운대구 구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정책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임말숙 의원
(좌1·3·4동)

통합의 행정을 기대하며...

본의원은 미래세대에도 당당한 해운대가 되었으면 하며, 현명한 판단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 집행부는 거시적인 해안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작은 성과를 위해 주민들을 선동하여 양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 아프다.

첫 번째, 중고속철도 EMU-260은 당초 신해운대역 정차를 추진해 왔으나 구청장은 편리함과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재송동 주민들의 민원을 내세우며 바로 옆 센텀역에도 정차해 달라며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개통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변경된 정책은 그린시티와 중동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고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지 않

은 이중적인 행정으로 같은 지역 안에서 과열 양상이 빚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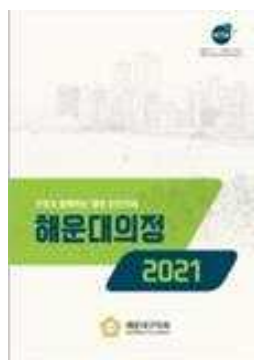
두 번째, 해상풍력사업은 그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업체 측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해법을 찾는 행정이 필요하나 이를 방기하고 세월만 보내는 모순적인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나뉘지고 구청 앞에선 계속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 없으며 행정의 공백 혹은 식물행정인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세 번째, 신청사 이전은 구청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현 청사 활용에 대한 최고의 방안을 마련한 후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자 도리이며 최소한의 배려다. 굳이 급하게 언론 보도부터 진행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주민들을 또 양분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최근에는 국제 설계공모 진행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기사와 참가 업체를 공개

한 기사가 나뉘어 보도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행정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행정에서조차 주민들을 선동하고 둘로 갈라놓는 이런 해프닝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이것이 우리구의 자화상이라 유감이다. 선심성 지원 행정이 아닌 이제는 해운대의 미래에 스마트한 기술력을 더해 스마트시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타 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스마트시티구나 팀을 만들어 국비 확보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구도 눈앞의 그림이 아닌 미래를 향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채워갈 스마트시티를 향해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는 행정을 기대한다.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민심을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어렵게 말씀드리고 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길 바란다.

<2021 해운대의정> 발간



해운대구의회(의장 이명원)는 정기간행물 <2021 해운대의정> 제15호를 발간하였다. 이 간행물은 해운대구의회의원 18명의 2021년 의정활동 사항을 집약한 책자로서, 의안처리현황, 의원 발의 조례안 및 5분 자유발언, 결의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2021 해운대의정> 제15호는 해운대구의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동백섬 해상관광케이블카 설치 반대 결의』

해운대구의회(의장 이명원)는 지난 4월 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김정욱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백섬 해상관광 케이블카 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 해운대구의회 2022년도 5월이후 의사일정 계획

회 수	회 기	주 요 내 용
제265회 임시회	7. 6 ~ 7. 8	■ 제9대의회 의장단 선거
제266회 임시회	8. 19 ~ 8.30	■ 업무보고 ■ 조례·일반안건 처리
제267회 정례회 [1차]	9. 19 ~ 10.6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 2022.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 조례·일반안건 처리
제268회 정례회 [2차]	11.9 ~ 12.20	■ 2022. 행정사무감사 ■ 2022 추경 및 2023. 예산안 ■ 조례·일반안건 처리 ■ 구정질문 등

※ 구 및 의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해운대구에 필요한 조례

구민과 해운대구의회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2.1.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E직접 사이트 : WWW.JUMINEGOV.GO.KR